

새로 진단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체중 변화 양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²

양바론¹, 김진영¹, 김미경¹, 백기현¹, 송기호¹, 한경도², *권혁상¹

목적: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시작할 때 인슐린의 동화 작용으로 인하여 체중 증가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인 예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병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체중관리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진단된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체중 변화와 이와 연관된 임상 요인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약 20%의 인구가 연간 기본 건강검진을 받는다. 따라서 먼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코호트에서 제2형 당뇨병, ICD-10 코드(E11)를 가진 환자들을 선별했다. 신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이전에 당뇨병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1형 당뇨병 또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을 제외하고 정의했다. 기준 체중은 등록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강검진을 통해 측정되었고, 이후 2년 이내 검진 체중으로 변화를 계산했다.

결과: 총 114,8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진단시 체중이 더 무거운 환자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당뇨병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에 공복 혈당이 더 높거나 인슐린 또는 술폰닐유리아 계통의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흡연과 음주는 체중 감량을 방해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기적인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

결론: 2형 당뇨병의 체중 감량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현대의 식생활 환경에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새롭게 진단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T) (2021R1A2C2013890)